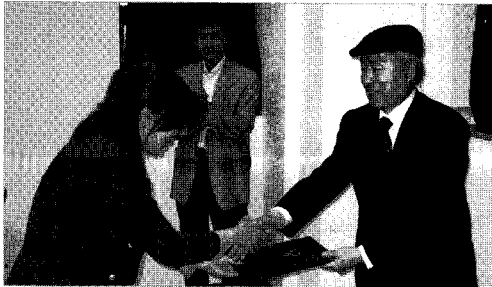


중앙회 소식

✦ 수의사복지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2일, 제1차 수의사복지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명곤위원장과 김현욱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강태육, 권영향, 김구용, 나상기, 오일균, 위혜진, 이종찬, 최갑철 위원이 참석하였고 서울(강명석), 인천(이해용), 경기(전학진)지부 소속 임원이 각각 1명씩 배석하였다. 김옥경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씀을 통해 “복지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수의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강명곤위원장의 주관으로 수의사복지위원회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와 인체용 전문의약품 공급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방역식품안전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6일, 제1차 방역식품안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재홍위원장을 비롯하여 강화순, 박병철, 손영호, 이병천, 이성모위원이 참석하였다. 김옥경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씀을 통해 현장 임상수의사들의 의견이 농식품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재홍위원장의 주관으로 방역식품안전위원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협의와 구제역 및 AI 방역과 수의사회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체계개선 및 기술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 후 농식품부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구제역 예방접종 개선 건의안

1. 구제역 예방접종 및 관리 체계 개선

■ 현행

- 양돈농가와 대규모 소사육농가는 농가 자율 접종 후 예방접종 확인서를 직접 발행, 소규모 소사육농가는 임상수의사 등의 백신접종반을 운영
-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 등은 보상에서 제외('11.6.1일)

■ 문제점

- 사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가가 자율적으로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직접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 부실 접종 야기
- 농가에 약품을 분액전달시 냉장보관 미비로 약효감소 및 부실접종 야기
 - ① 면사무소에서 직접 주사기로 2ml 뽑아 주사기 채로 나누어 주고,
 - ② 사용하고 남은 백신을 면사무소에서 반납받아 다른 농가로 분배하며
 - ③ 일부 농가는 백신을 버리고 빈병을 반납하는 사례 등이 있음
-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 우려로 백신접종 기피현상 야기

■ 개선 건의안

- 각 시·군별로 임상수의사로 구성된 예방접종반을 운영하여 예방접종 관리 및 효과 개선(각 시·군수의사회 협조)
 - 모든 예방접종은 수의사 관리하에 실시하되 예방접종반에 의한 예방접종은 소사육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 ※ 유사 예방접종(탄저·기종저, 전염성비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광견병 등)도 개선 필요
-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시 수의사 확인(진단서 등 발급)하에「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식품부고시 제2011-120호) 제1조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2. 구제역 예방접종 기술비 현실화

■ 현행

-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충당

■ 문제점

- 농식품부의 지침이 없어, 지역 마다 동일 업무에 시술비 지급 방식이 상이함
 - 시·군에 따라 두당 1천원~5천원 지급하거나, 일당으로 지급
- 국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방비 예산부족으로 업무 특성상 소요되는 차량운행비 등의 실비지급도 곤란한 경우가 있음.
 - 소규모 농가 마다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나, 5두 미만인 경우 시술비가 차량 운행비에도 미치지 못함

■ 개선 건의안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한 국비 예산 책정
- 농식품부에서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 기준을 브루셀라 채혈비(7천원/두)와 같이 각 시·도에 시달
- 소규모 사육 농가 예방접종시 두당 채혈비 외에 별도의 출장비 지원
 - 경북의성사례 : 소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출장시 두당 시술비 외에 농가 호당 출장비 20천원 지급

✦ 정영채 전 한수약품사장께 퇴직 기념품 전달



지난 7월 29일, 지난 6년간 한수약품 사장직을 맡아 소임을 다하고 퇴사하신 정영채 전 한수약품 사장에게 전 사원의 뜻을 담은 퇴직기념품을 전달하였다.

✦ 회장동정

- 7월 1일 : 한국수의정책포럼 참석
한국사료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7월 6일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도축검사연구시설 준공식 축사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축사
- 7월 12일 : 한수약품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주관

- 7월 14일 : 이용희국회의원 면담,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인사
- 7월 15일 : 국내 5대 백신 메이커 대표 간담회 주관
- 7월 21일 : 세계수의과대학 학생협의회(TVSA) 개회식 축하
- 7월 22일 : 수의사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인사
- 7월 25일 : 농식품부 신임 축산정책관 및 축산관련 단체장과 오찬
정해걸국회의원과 경북의성에서 “수의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 7월 26일 : 방역식품안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인사
- 7월 28일 : 부가세 철폐 TF 회의 참석
- 7월 29일 : 정영채 전 한수약품 사장 퇴직기념품 전달

관련기관소식

✦ 임순례 감독이 전하는『(영화)미안해, 고마워』 제작 뒷이야기 및 일상에서 실천하는 동물 복지』

농림수산식품부는 7.27(수), 임순례 감독을 초빙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도시락 포럼을 개최하였다. 『(영화)미안해 고마워』 제작 뒷이야기 및 일상에서 실천하는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번 포럼에서 임감독은 “동물도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깨닫고,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특히,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동물 복지수준이 곧 그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농식품부직원은 “가축 등 동물을 업무의 객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동물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축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방역총괄과 안유영 사무관은 “최근 잔혹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번 도시락 포럼은 맡은 업무에 대해 소명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11.7.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 제5조 제9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적극적인 예방접종 여부 관리 감독 실시

《주요 내용》

- ◇ 소, 돼지, 염소의 거래·출하시에는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 ◇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 강화
 - * SP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 실시
- ◇ 농가 자가접종시 공무원이 직접 백신 공급 및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
 - * 예방접종 후 남은 공병은 시·군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 조치
- ◇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통한 접종 지원
- ◇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지역단위 협의회 개최 및 리후렛·SMS등 활용
- ◇ 7.25일부터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은 시세의 80%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토록 하였다.

※ 모니터링 검사물량 : ('11년) 20만건 → ('12년) 30만건

구제역 예방접종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하였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은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조치하였다.

※ 7월중 전국 시·군별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

아울러,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리후렛·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하였다. 2011년 7.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하여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